

| 동아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좌담

한국, 그리고 서강의 동아시아 연구: 기회와 과제

윤병남 (서강대학교 사학전공 교수)

이옥연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 교수)

김동택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전공 교수)

김형준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 윤병남 교수

좌담회의 주제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준비가 쉽지 않았으나, 취지문을 보니 이 이슈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잘 제시되어 있어서 라운드 테이블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발제의 제목은 “한국, 그리고 서강의 동아시아 연구: 역사학, 일본(사)학, 사학과의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학의 기원을 고찰할 때 국내적인 요인이 없지 않았으나, 미국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아시아학의 본격적인 발전은 전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의 경우 전전에 설립되었고 전후에도 그 성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후에 등장한 후발주자들의 동아시아 학과는 대체적으로 ‘East Asian Studies’라는 명칭을 채택했고, 제가 공부한 프린스턴 대학의 동아시아학과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동아시아학이라는 명칭과 개념이 한국에 도

입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동아시아학은 개별적인 국가에 대해 연구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제반 초국가적인 현상을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시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입니다. 이에 더해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도 신생 분야의 성격이 강했고 연구자의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연구자들 간의 협업이 매우 필요했고 동아시아학과의 교수 채용과 연구가 학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East Asian Studies’의 우산 아래 역사, 문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동아시아학이라는 분야를 형성하여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가 동아시아학과의 학생으로서 경험했던 미국의 동아시아학의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의 경험이라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일본사를 공부하기 위해 입학했는데, 동아시아학과 내부에 중국과 일본의 두 파트가 존재했고, 각각의 파트는 역사와 문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학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취업 시장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고, 그때 이후로 구입한 한국 관련 자료가 동아시아 도서관의 장서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포 학생의 입학이 늘면서 한국학 개설의 요구가 커져 1990년대에 한국학 분야가 다시 설치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당시에 중국사나 일본사 담당 교수는 동아시아학과와 사학과에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중국문학이나 일본문학 전공 교수들은 다른 관련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동아시아학과에만 속하게 되었습니다. 문학 전공 교수의 일부가 비교문학 프로그램에 속하는 경우는 있었

습니다. 역사 전공 학생은, 전근대는 ‘East Asian Studies’, 근현대는 ‘History’에 배정되었습니다. 정치학, 사회학, 종교학, 인류학, 미술사 등에서 중국과 일본을 전공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들은 개별 전공에 속하면서 활동을 하였고 동시에 동아시아학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연구의 커뮤니티를 구성합니다. 매주 개최되는 콜로키엄에 함께 참여하고 강의 수강과 논문지도가 매우 유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2개의 부전공을 요구하는데, 그 중 하나는 자신의 연구 국가 외에서 선택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일본 전공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중국 전공 학생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 요구하였습니다. 컨퍼런스나 연구 저작에서 동아시아학의 개념과 목적이 강조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개별 국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동아시아학이라는 우산은 유연하고 느슨한 활동무대이고 울타리였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동아시아학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는 매우 기이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동아시아 중심의 관점과 연구는 필연적으로 자국 중심의 관점과 연구와 충돌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먼저 일본의 연구자들이 겪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의 사학과는 일본사, 동양사, 서양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사가 독립된 학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양사에서 중국사와 한국사가 주가 되고 일본사는 빠져 있습니다. 근대학문 발전에 일본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동양사는 한국에서도 똑같은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이 제외된 중국과 일본이 주를 이룬 범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관점과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니시지마 사다오의 ‘조공, 책봉 체제론’이나 하마시타 다케

시의 ‘조공체제론’이 중국사 전공자나 일본사의 주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사 전공자의 기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1980년대 이후에 아시아 속의 일본 등의 새로운 관점이 주목을 끌게 되고 관련 주제를 다룬 시리즈와 연구서의 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동양사 전공자 중에서 특히 주목을 끌었고, 그 대표적인 업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서강대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김한규 교수의 『천하국가론』 등 일련의 연구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적 관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사 연구자 사이에서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아시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는 늘 고민하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널리 교재로 사용된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s* (동양문화사)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베트남이 들어가 있으나, 동남아시아의 포함 여부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몽골과 같은 북방 지역의 포함 여부도 이슈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밀도, 정치·사회체제, 문화적 공통성 등이 범위 설정의 주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양사적 관점에서 필리핀,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시도도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비교사의 관점에서 성과를 거둔 몇몇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학계의 현실에서 보았을 때 광역의 시점을 지니고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시각과 이론은 대가가 아니면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김한규 교수는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강한 독자성을 드러냈던 지역과 국가들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통해서 중국 일원론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다원적

인 동아시아 세계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천하국가』(소나무, 2005)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참여한 “동북아역사지도편찬사업단”이 주관한 “동아시아 역사상의 경계와 지속”(2014년 전국역사학대회 분과회의)은 장기간의 지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학술회의였는데, 동북아역사지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략 25개국의 경계와 지배의 양상이 어떠했는지 고대부터 현대까지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들 지역이나 국가들이 중국 제국과 맺었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 가졌던 다양한 관계가 실제 지도의 표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신윤희 교수님이 참석하여 동남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의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비교사적 관점이 반영된 연구를 일본사 분야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박훈 교수의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를 들 수 있습니다. 박훈 교수는 메이지유신이 왜 일어났는가를 탐구하면서 지금까지 강조되어온 근대화(서구화)의 요인보다는 내재적 발전과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를 수행했고 사무라이의 사대부화라는 시각을 제시하여 사무라이들이 주도한 정치적 논쟁이 정치적 변혁을 초래한 정치적 운동으로 변화하며 메이지유신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 교수의 관점은 메이지 유신을 프랑스 혁명 등 서구의 사례와 비교하며 그 특징을 도출하려 했던 일본 도쿄대학의 미타니 히로시 교수의 『일본사 속의 보편 - 비교에서 생각한다』(동경대학출판회, 2020)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메이지 유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욱연 교수

먼저 동아연구소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서강 동아연구소가 앞으로 동남아 연구의 핵심 기지이자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계속 성장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지역학 연구의 위축이랄까, 열기가 식었다고 하는 점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학이라는 연구들은 도구적 개념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유용성에 크게 차이가 있고, 만능도 아니고 유일무이한 것도 아니지만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저는 지역학 개념으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다고 봅니다. 특정 국가‘들’을 초국가적 특정 지역이라는 개념 아래 한데 묶어서 연구하는 지역학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중국은 정치체제의 차이는 적혀두더라도 문화적 차이도 큼니다. 유교나 한자 차원에서 하나의 지역으로 묶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부의 차이가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더욱 그렇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울러 특정 지역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대표국가, 빅 가이 연구입니다. 요즘 동아시아 연구는 거의 중국 연구입니다. ‘지역 대국 연구’가 ‘지역 연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지역학이라는 시좌,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히 외부의 시선이고, 외부의 편의를 위해 창안된 것입니다. 지역학이 태동한 미국의 지역학 연구를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내부 정책학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을 한데 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눈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눈을 사용하여 세계를 볼 수밖에 없듯이 지역학이라는 틀도 그렇습니다. 이 패널

토론을 위한 자료에서 동아연구소가 진단한 것처럼, 오늘날 지역학이 위기를 맞는 징후가 있다면 그것은 지역학 자체의 위기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지역학 연구방법이 이제 모종의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과도기에 처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연구틀 내지 연구방법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징후가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전환과 관련하여, 나름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문학 차원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의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첫째는 조금 촌스러운 언급일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특정 지역을 연구한다고 할 때, 다른 국가의 특정 지역 연구와 다른 차별성과 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동남아시아학과 한국의 동남아시아학은 같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차별성과 개성을 지닐까요? 한국의 국적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면 철 지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서, 그것을 한국적 현실과 접목한 해외 지역 연구라고 돌려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의식과 고민은 한국 현실에 대한 절박한 고민에서 출발하지만, 대상은 특정 지역으로 삼는 지역학이 다른 나라의 지역학 연구와 구별되는 연구적 시각을 마련해 준다고 봅니다. 제 경험의 폭이 좁아서 조심스럽지만, 최근 일부 지역학 연구는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고, 방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국적 완상(玩賞)의 재료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학의 경우,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중국학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복제품들, 미국이나 일본의 중국학과 차별성 없는 유사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에서 지역학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문제에 대한 절실한 고민의 눈을 출발점으로 삼아 해외 지역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해외 지역학이 한국 내부로, 한국학 내부로 스며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외 지역학과 한국학이 하나로 결합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학은 국학이 아니라 지역학으로 지구 지역학(glocalogy)으로 나아가면서 지구 한국학이 되고, 해외 지역학은 해외학이 아니라 한국학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학과 해외 지역학 사이 이런 나감과 들어옴의 과정에서 하나로 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한국학은 지구적 보편성을 강화하고, 해외 지역학은 주체성과 실천성을 강화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의 지역연구의 개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해외 지역 연구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절실한 고민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은 해외 지역 연구의 개성을 찾는 데도 중요합니다. 일본 현대 중국 연구에서 독보적 개성을 지닌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의 중국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은 현대중국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현실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하여 일본이라는 종착지로 귀환합니다. 다케우치 요시미의 이러한 기본 태도가 독보적인 연구 개성을 만들었고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중국 연구 성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해외 지역학을 연구할 때 늘 새겨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둘째, 지역학의 가장 고전적인 분야는 사회과학이었습니다. 이는 지역학이 정책학의 성격으로 태동한 데 연유한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해외지역학 연구에서 인문학 연구는 언어와 문학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분과별 장벽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벽을 넘는 것이 지역학 연구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지역 연구에서 인문 지역학이 크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인문 지역학이란 과거 어문학 위주의 특정 국가, 특정 언어권, 특정 지역 연구와 달리 문학, 역사, 철학, 문화를 아우르는 그 지역 사람과 의식, 삶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람의 학문인 인문학에 지역성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인문 지역학을 통해 정치와 경제와 같은 제

도를 지탱하는 심층구조로서 해당 지역 인간의 의식과 삶에 대해 연구하는 인문 지역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제적 접근(thematic approach)이 더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지역 융합학입니다. 지역연구가 주로 사회과학과 인문학 차원에서 한정된 연구분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에, 나아가 인문학과 사회과학 내부에서도 장벽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가지 쟁점과 사안을 여러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학이 주제학을 지역학 내부의 회통과 융합은 지역학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패널 토론 제목이 서강의 동아시아 연구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우려를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한국에 서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동남아 연구 핵심기지로 빛나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강이 거둔 가장 빛나는 성취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윤환 전임 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강희정 현 소장님과 여러 교수님과 연구자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동남아 연구 핵심 기지가 되도록 서강 구성원 모두가 지원하고 힘을 보태야겠지요. 그런데 서강대의 사정을 보면, 동남아연구의 성과와 비교할 때, 한·중·일 대상의 동북아연구, 특히 한국학 연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 일본 연구, 특히 한국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남아학, 동북아학, 한국학이 상호 결합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서강대 현실을 감안할 때, 동아연구소가 그런 결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김동택 교수

학계에서는 한국을 비교적인 시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있는 것 같으나, 제가 공부한 과정을 생각하면서 보내주신 토론 거리를 생각해봤습니다. 지역학은 인문학자든 사회과학자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학이라 이야기했을 때, 저를 예를 들면 방법으로서 한국을 택한 것이지, 한국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무언가를 다 말해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학이란 ‘지역’이라는 대상을 통해 인간의 삶과 인간사회라는 제도, 문화 그것을 제공해주는 틀이 무엇이나를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역학으로 인해 동남아 연구나 동아시아 연구를 하였고, 1945년 이후 지역학의 필요성이 많이 생겼고, 각종 아시아학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럽에서는 오리엔탈 스티디가 계속 있었습니다. 1970-80년대 학문적 분위기와 다르게 1990-2000년대 지역학 연구에 대한 관심은 추세적으로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역연구의 경향을 보면서 보편적 과학에 비추어서 특수성을 강조하는 지역연구가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거꾸로 한국적 특색을 반영해서 지역학적 특색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큰 나라라고 생각되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공존을 추구하고 관계 대면을 더욱 넓혀갈 동남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로 지역학적 관심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신남방을 이야기하며 동남아는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기점으로 동남아 연구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꾸로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지역학 연구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남아에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거꾸로 한국도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실천적으로 느낀 것은 어떤 지역에서 수요가 막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 한 때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가 지난 10년 사이 학과가 생기고, 거꾸로 한국에서도 중국과 조우하는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한국과의 접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역학을 대하는 태도, 수요, 필요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동남아는 중요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든 도구로서든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연구소의 역할이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책연구, 두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서의 동아연구소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우 필요에 의한 것으로 계속해서 한국 정부 및 사회에서 동남아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각자 개인 연구자들이 학문적인 관심에 초점을 두어 원하는 연구를 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연구가 의식적으로 조절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패권 하에서 서구에 많이 유학을 가고 학문을 수용했습니다만, 한국이 한국의 입장에서 지역학을 한다는 것은 한국이 해당 지역과 공존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역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패권국가가 될 일은 만무하기에,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학의 입장에서는 차별성, 공통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북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왜 일본이 일본학과 동양학

을 구분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일본은 동양이 아니기 때문에” 탈아입구에 충실한 관점에서 구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학이 동양학의 일부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나중에는 중국학과 나머지 동아시아를 구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끼여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를 윤병남 교수님께서 해양학과 다른 것으로 보셨는데, 해양학과 대륙학이 한국에 어디에 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륙학으로 보는 학자들은 한국을 중국적 영향의 관점을 강조하고, 해양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을 일본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이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간은 대륙세력의 일부로 있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일본 혹은 제국의 일부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이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아연구소에 여러 함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가 중국과 갈등을 하면서도 의존하는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국이 대륙세력으로 있다가 명대 초기 정화가 조공을 추구하면서 대항해시대가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것과 관련하여 그 지역적 위상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아연구소의 지역학 연구소로서의 역할은 한국에서는 그 쓰임새가 정책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연구, 즉 보편성과 학문성을 추구하는 데 실존적인 분열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학의 연구범위가 모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린 지역 체계로서의 동남아는 연구소의 핵심적인 아젠다였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대응하는 동남아적

방식인지 동남아적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세계화를 하지만 그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열린 지역으로서의 동남아라는 것이 글로벌한 패권이 관철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트렌드 속에서 나름의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인지 정부가, 지역체가, 각각의 NGO와 같은 단체,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동아연구소가 어디에 설 것인가, 어떤 조류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학의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학문에서의 훈련이나 지역학의 훈련이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을 하면서 얼마든지 특정한 주제에 수렴했다가 흩어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고민하는 학문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지역 문화들, 그리고 스토리 컨텍스트,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사회과학의 데이터의 객관적인 수치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아직 동남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과 고유의 컨텍스트와 언어들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선생님들께서 언급해주셨듯이 한국을 공부하면서 중화체제, 조공체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는 동아시아를 설명할 때의 이야기고 비교사학적 관점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을 갖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적 생산양식, 아시아적 전제 이런 것이 최근에는 내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를 외부적인 시각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고도의 생산관계가 형성된 동아시아 사회라는 맥락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80-90년대, 2000년대

로 들어오면서 한국이 부상한 이유, 중국의 재부상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연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비교사회사, 비교사를 통해 공통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륙으로서의 동아시아를 표현한 것이 조공체계이며 소농사회는 이와 대조적으로 내적인 것에서 공통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맥락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자면, 동남아 연구 그리고 크게는 동아시아 연구에 한국학이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연구를 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며, 동아연구소가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연구를 시도했으면 합니다. 한국학이 커야 이러한 바람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연구는 재평가와 관심의 주목이 되고 있고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김형준 교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소의 위상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분야로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세계 있어 동아연구소는 국내 동남아시아 연구의 메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아연구소가 동남아에 대한 집합적 연구 전통을 확립한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을 뒷받침한 요인 중 하나는 학술지 『동아연구』와 *TRaNS*입니다. 동남아 관련 연구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출판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학계에서 한국 동남아 연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동남아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 일반에게 많은 자부심을 주었고, 서양 학계와 견줄 수 있는 위상을 한국 학계가 확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펼침으로써 학문 후속 세대 부족이라는 동남아 학계가 직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수행해 왔습니다. 동남아 관련 지식의 대중적 확산에 있어서도, 신문 기고, 언어강좌, 이슈 페이퍼,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는 연구소 구성원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들의 희생적 노력에 경하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아연구소의 과제는 동남아 연구 메카로서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강’을 대상으로 하여 동남아와 동북아 연구를 포괄하는 연구소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동북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여전히 사용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개념의 확장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학내 구성원에게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상황은 동아시아 개념의 확대 적용에 우호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문제가 국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을 때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역시 커다란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와 동북아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매개로 한 공동의 학문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아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전통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확대 재생산할 때, 학제적 연구의 중심이라는 동아연구소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동남아에 대한 ‘서강’의 관심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남아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동아연구소의 역할 강화입니다. 국내에서 동남아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동남아학회와 동남아 연구자들을 묶는 대표 기관이지만, 그 활동 범위와 강도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아연구소가 동남아 연구자의 활동을 연결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대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TRa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동남아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세계화함과 동시에, 이들과 연구소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동남아 연구자를 묶어낼 유일한 기관이라는 자기 인식 하에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미디어 매체 활용을 통해 국내외 학자들 사이의 상호 소통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연구소 구성원의 역량을 고려해보면,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움직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